

제역할 못하는 농촌 치안센터

전남지역 일부 농촌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안센터가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는데도 주간에도 1명의 경찰관만 근무하고 있어 '치안 부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흥군의 경우 전국 경찰 조직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용산면 등 4개 면에서 파출소가 폐지되고 치안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치안센터는 주간에만 경찰 1명이 근무할 뿐 야간에는 아예 문을 닫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야간에는 인근 지역 파출소가 순찰을 대신 하고 있

는 실정이다. 파출소에는 평균 8~10명의 경찰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장흥·고흥 주민들 "파출소로 전환해 달라"

고흥지역은 16개 읍·면 가운데 7개 면에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고흥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포두면의 경우 야간에 경찰관이 없어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때문에 고흥경찰서는 최근 전남

지방경찰청에 포두면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주시 역시 13개 읍·면 중 6개 면에 치안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들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경찰이 근무할 뿐 야간에는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야간 순찰을 맡고 있다.

3개 지구대와 3개 치안센터가 설치

돼 있는 해남지역도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종전처럼 '1면 1파출소 체제'로의 환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도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2부제(2교대) 체제에서 3부제로 바뀌면서 필요 인력이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 정원이 적은 군 지역 경찰서에서는 인력 배치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어 일부 일선 군 단위 지역의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한 바 있다.

/지방종합



봄비에 바빠진 농심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심이 바빠졌다. 비가 내린 지난 9일 강진 작전 들판에서 농민들이 대형 트랙터로 논 비탈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화염속 아버지 구한 학생돕기 '온정' 답지

장수중군 딱한 사정 보도에

신부·시의원 등 잇단 성금

아버지날 화염 속에서 아버지를 구하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중학생을 돕기 위한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지난 8일 발생한 화양면 주택 화재로 부상한 장모(52)씨와 아들 수중(15·화양중 3년)군 부자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LG 화학 여수공장 장재화 부사장은 10일 1천만원을 화양면사무소에 전달했다. 화양면 이장단은 이날 100만원을 화양면사무소에 전달했으며 화양면 직원들도 자체 모금을 벌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9일 독지가 4명과 여수 신기동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했던 광주대

교구 김연준 신부가 수술비와 치료비에 써달라며 700만원씩을 화양면사무소에 전달했다.

11일에는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성금을 건여 장군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여수시교육청과 장군의 학교에서도 모금운동 등 장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화양면사무소 관계자는 "돌겠다는 전화가 잇따라 장군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이런 분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장군 부자 모두 무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발생한 화재로 장씨의 어머니(86)와 부인(51) 등 2명이 연기에 질식사해 숨졌고 장씨는 막내 아들 장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 차질

사업비 부족 8개월째 공사 중단

전국 최초로 추진된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02년 말 착공한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은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80% 공정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행정절차 위반과 주민반발, 투기장 확보난 등으로 일년에 한번꼴로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 이미 2005년 말 준공예정일을 훨씬 넘겼다. 지금까지 공사는 총 99만㎡의 준설토 가운데 78만여

㎡를 처리했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어패류 채취에 지장을 받는 등 지역 어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강진읍 돌리에서 칠량면 죽도 부근까지 12km구간 수로를 폭 30~50m로 준설해 어패류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올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했으나 내년 말 준공을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맛·품질 좋은 보성 '올벼 쌀' 인기

웰빙 선식 재료로 각광

재배면적 전년보다 확대

보성군의 특산물인 '올벼 쌀(사진)'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올해 올벼 쌀 재배 면적은 160ha로 지난해보다 5ha 증가했다.

시장 개방과 수요 감소로 매년 쌀 생산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올벼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은 웰빙 붐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벼 쌀은 보성 강 발원지이자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올벼면 고원지대에서 저농약 친환경 농업에 의해 생산된다. 특히



찰벼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뛰어난 신선 찰벼를 원료로 가마솥에서 찌낸 다음, 현미로 도정해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된다.

최근에는 올벼 쌀을 가루로 빻아서 우유나 요구르트에 함께 마시는 선식 재료로서 다이어트나 식사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전남 식물 6건 천연기념물 된다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의 황칠나무 등 전남지역 식물 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식물은 황칠나무를 비롯 ▲장성군 북하면 느티나무 ▲장흥군 관산읍 후박나무 ▲담양군 무정면 은행나무 ▲보성군 회천면 팽나무 ▲화순군 춘양면 개천산 비자나무 숲 등이다.

수령 400년으로 추정되는 정자리 황칠나무는 전통 도로 황칠과 관련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역시 수령 400년에 달하는 단전리 느티나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완도 보길면 황칠나무

장성 북하면 느티나무

장흥 관산읍 후박나무

담양 무정면 은행나무

보성 회천면 팽나무숲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숲

발견된 느티나무 가운데 가장 크다.

또 수령 400년의 관산을 삼산리 후박나무는 세 그루가 한 그루처럼

람 어우러져 수형이 특이하고 아름다우며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 무정면 봉안리 은행나무는 가슴높이의 둘레가 8m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른 은행나무(23건)에 비해 크고 우뚝하다.

회천면 전일리 팽나무숲은 수령 300~500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 18주와 느티나무 1주로 구성된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아름다운 숲이며 개천산 비자나무숲은 수령 400년에 높이 16m, 둘레 3.5m에 달하는 노거수를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홍형기기자 redplane@

화순군 '쓰레기 대란' 우려

한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반발 공사 중단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착공한 한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1만4천805t 규모)은 당초 다음 달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민반발로 지난해 말 45% 공정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주민들은 "화순군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화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능주위생매립장(2만8천829t 규모)이 포화 상태에 달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가 계속 늦어질 경우 내년 부터 화순군내에서 쓰레기 처리할 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화순군에서는 하루 20~30t 가량의 매립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능주위생매립장의 경우 현재 8천t 가량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합의의를 거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승인 절차를 다시 밟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제정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남·북 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 시외·시내 출장전문
- ★ 체육대회·야유회
- ★ 식탁·의자 무료지원
- ★ 연회장 주차장 완비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품질은 100% 가격은 80%

◆ 배터리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운가요?

배터리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벳(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성능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 적용범위

자동차 및 물류 배송센터 ▶

◆기대효과

- 배터리 교체비용의 2/3 이상의 원가 절감
- 사용중인 배터리에 적용시 2배 이상의 수명연장
- 개선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악성 폐기물 배출 감소 및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통경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껴도 회사 살림이 확 됩니다. 지금 **배터리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 드리겠습니다.

◆ 주요실적 ◆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탕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통지게차 현장투입의 108개 업체 현장투입 가동중

bd (주)배터리닥터
BATTERY DOCTOR www.batterydoctor.com

총판 모집
전남·전북

상담전화 02)3664-1066